마음 안 맞음이 없는 삶

(요나 4장 1절~11절)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안 맞음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안 맞음이 없는 삶'

마음 맞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한 때 한이 쌓여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경이고 모자고 옷이고 필요한 물건을 사면 마음에 척척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안경을 사면 큰 얼굴에 맞는 적이 없어서 반짝거리는 새 안경을 쇠줄로 갈아야 했습니다. 안경다리가 접히는 부분을 깎아서 V자 모양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야 쓸 수 있었습니다. 매번 안경을 살 때마다 새 안경을 깎아야 하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또 중학교 때에는 모자가 맞는 것이 없어서 특수 제작을 하느라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자만 쓰면 얼간이 같아집니다. 머리 꼭대기에 모자를 올려놓은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바지를 사면 차마 비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이 바지를 펴놓고 제 다리 길이에 맞춰 바지를 자를 때에 보면 남아있는 부분보다 잘려 나가는 부분이 더 많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아들은 바지고 안경이고 모자고 사는 대로 손 안대고 척척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사는 대로 척척 맞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남녀노소 형편과 처지가 각기 다른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지금의 삶의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상의 말도 없고 이하의 말도 없습니다.

마음 맞는 아내, 마음 맞는 남편, 마음 맞는 부모, 마음 맞는 자녀, 마음 맞는 친구, 마음 맞는 회사, 마음 맞는 사장님, 마음 맞는 직원, 마음 맞는 옷, 마음 맞는 집, 마음 맞는 음식, 마음 맞는 여행 등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이 마음에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삶은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근심걱정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삶의 행복에 있어서 마음 맞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 맞음이 인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차피 마음은 누군가를 상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척척 맞아 들어간다면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상대해야만 하는 모든 대상들이 마음에 척척 맞아 들어간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모든 분들이 삶의 형편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걱정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슬픕니다, 좌절감이 생깁니다, 등의 가지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한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마음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이 마음에 맞기를 기다리지 말고 환경에 마음을 맞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아주 많이 틀린 말입니다. 애초에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무르는 대로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 말씀을 따르면 마음에 맞지 않음이라는 말이 결코 생길 수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괴로움과 우울함의 고통은 모두 삶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음이 없는 삶이 가능 할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는 곧 모든 것이 마음에 맞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의 대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나라 문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과제는 일이나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하는 마음의 시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면 됩니다. 이것이 선민의 사명입니다.

절대로 내가 잘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십니다. 또 내가 주관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선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안 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맞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음에 안 맞을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10억을 벌어보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것은 그 꿈을 이루는 것에 백분의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것은 백분의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요나는 삼일 길이 걸려야 선포할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선포를 하였습니다.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으로 빠져나온 요나는 성이 다 내려다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멸망 심판의 예고와 회개를 선포하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망해야 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에 마음이 언짢았고 여전히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요나는 더운 날씨 속에 초막에 의지하며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에 붙들려 있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보이지도 않았던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덮게 하십니다. 초막을 덮어 시원하게 해주는 박 넝쿨은 멋지고 아름답고 마음에 맞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동풍을 보내서 말라죽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곤비함을 견딜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성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성을 내는 장면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10~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에 대해 학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만 단순히 성인 남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좌우를 분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좌우를 분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멸망하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나가 고작 박 넝쿨을 아끼다 그것이 사라졌다고 성을 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십만 명이 다 죽는 것에 대해 바람과 기대를 갖는 것이 마땅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은 요나서의 주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봅니다. 선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지평의 넓음을 일컫는다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본문에서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은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성을 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성내고 분을 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적대국인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니느웨가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느웨가 동원 된 것입니다. 가장 싫어할 것을 동원하심으로써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따라서 선민의 평생 과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갖기입니다. 배우자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선민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동안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가가 과제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은 선민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될까요? 일본이 망하기를 바란다거나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일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서 그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이야 말로 선민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요나의 믿음입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본문을 통해 요나가 보여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자리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하였습니다. 또 같은 장의 12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마음 맞추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또한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스스로 올무를 놓아 참새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주관하지 않으시는 일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와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일은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고 추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요나의 믿음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주관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신다는 데 다른 도구나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드리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아 그돌라'로써 '라아'는 '악'이라는 뜻이고 '그돌라'는 '매우 크다,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대한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는 말을 직역해보자면 '요나가 거대한 악함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기준으로 볼 때에 요나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악한 일을 마주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1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는 부분을 다시 풀어보자면 '내가 매우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이 상대적인 형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느웨의 타락이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상태였고, 요나의 기준에서는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에 견딜 수 없는 악한 상태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마음 맞춤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 하심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악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싫게 여겨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무척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싫어함이 요나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악을 행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예로 배우자를 들어봅니다. 배우자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주심으로써 내게 엄청난 악을 행하셨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병이 난 것이 너무나 싫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영적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내게 싫고 견디기 어려운 악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며 사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일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싫어했을까요? 그 상황을 싫어했다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맞추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는커녕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재산이 있고 어찌됐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싫어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과 짜증과 성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때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군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헬리콥터 동체를 고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면 손을 꺾어 집어넣고 나사를 조이는 등의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보고는 했습니다만, 이 미군 병사는 열정적인 라틴 출신이라 그런지 일이 안 풀리면 공구를 헬리콥터를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고 사사건건 반복되다보면 성이 납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신이 나고 기쁠 수도 있는데 상황이 마음에 맞지 않다보니 남편도 자녀도 건강도 외모도 재정도 화가 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두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적대국을 하나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수도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회개했으므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잘되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서가 촉구하는 바가 잘 드러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죽도록 화가 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심 밖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도, 취직과 결혼이 어려워도 이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바깥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괴롭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일을 잘 하는 것이나 내 기준에 맞춰서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환경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게만 여겨지던 일에도 감격이 생기고 지긋지긋하던 환경이 감사와 기쁨의 대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슬픈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싫고 지긋지긋한 이유는 하나님과 찢어져 독립하고자 했던 아담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따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을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계획하시고 이끌

어 가시려는 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별도의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은 괴롭고 무겁고 슬픔과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가 가르쳐준 성냄과 싫어함의 두 단어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싫어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독한 악을 행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한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싫어할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조차도 싫게 여기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어머니나 아버지였다면 아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었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 받기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 원수를 싫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과 마음 맞춤은 일어납니다. 내가 성냄과 싫어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때에 원수나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일에 대해서조차도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싫어하고 화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춤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싫어할 일들이 내 눈 앞에 나타납니다. 하루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화가 나는 일이 수없이 이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싫어할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이 화낼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게 하셔서 이제부터 신바람 나는 감사생활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